임협타결 42% "동결·삭감"

광주·전남 사업장도 … 외환위기 이후 최고

올해 임금 협상을 끝낸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4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도 임금 삭감·동결 사업장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6일 광주·전남지역 임금교섭사업장 1천151곳 중 임금협상을 끝낸 26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동결·삭감한 사업장이 11곳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임금을 동결한 사업장은 9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이나 늘었고, 삭감 사업장도 2곳으로 2곳이 증가했다. 나머지 15곳도 임금이 1~2% 소폭 올랐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이기 때문에 실질적 임금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 가운데 지난 3월 말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837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동결·삭감한 사업장이 350곳에 달했다.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55개, 1999년 353개를 기록했다가 2000년 70개로 떨어진 뒤 해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들어 갑자기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의 41.8%를 차지했고, 작년 같은 시기(62곳, 전체 10.9%)에 비해 무려 4.6배 증가했다. 동결 사업장은 299곳(35.7%), 삭감 사업장은 51곳(6.1%)으로 나타나 작년 동기의 동결 55곳(9.6%) 및 삭감 7곳(1.2%)과 대비됐다.

또 협약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1.8%로, 외환위기가 지속했던 1998년(-2.4%)과 1999년(-0.3%)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협약으로 정하는 사전 인상률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만 승진에 따른 인상분과 초과급여, 특별상여금이 제외돼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을 말하는 명목임금 상승률과는 다르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의 비율은 12.3%로 임금교섭 타결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임금교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말 현재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 수는 481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150건에 비해 2.2배 늘었으나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10건으로 작년 동기(13건)보다 조금 줄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성차 1분기 68만6,221대 생산

작년보다 32% 줄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1분기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68만6천221대를 생산해 작년 1~3월보다 32.1% 생산량이 줄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1분기 내수 판매량은 14.9% 감소한 25만7천221대였고 수출량은 36.6% 줄어든 43만6천587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생산이 26만1천681대, 내수가 9만5천444대, 수출은 16만2천58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생산 27.9%, 내수 15.4%, 수출 34.3% 줄어든 실적이다.

1분기 내수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50.3%로 가장 높았고 기아차 30.9%, 르노삼성 9.2%, GM대우 7.2%, 쌍용차 1.9% 순이었다.

기아차는 올 1분기 내수 7만9천406대와 수출 20만2천153대 등 28만1천559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내수에서 신차 판매 호조로 6.7% 증가한 반면 세계적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해외 판매가 24.1%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7.4% 감소했다.

승용차는 소형차가 작년 동기보다 17.4% 증가한 점을 빼고는 전 차종의 내수 판매량이 감소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기아차 경차인 '뉴 모닝'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쏘나타와 아반떼, 그랜저 TG, SM5 등 순이었다.

1분기에 수출이 가장 잘 된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였으며 베르나와 프라이드, 젠트라X, 포르테, 투싼, 뉴 모닝이 뒤를 이었다.

차급별로는 미니밴과 중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형차가 각각 81.3%, 58.5%, 53.3%, 32.0%씩 수출량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종들의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4% 감소한 69억5천만달러로 선박류와 무선통신기기에 이어 품목별 수출액 3위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전자 창립 40주년 … 그린 대축제 삼성전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6월 말까지 친환경 소재와 저전력 기술을 채용한 그린 IT신제품을 선보이는 '삼성컴퓨터 그린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 상장사 1천원 팔아 52원 남겼다

작년 영업이익 전년보다 9.3%↓

환율급등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한 반면 부채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역 상장법인 23개사의 2008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총액은 7조5천671억원으로 전년대비 18.94%인 1조1천998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업업이익은 3천949억원으로 전년보다 -9.29%인 404억원이 줄었다. 이에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2%로 전년 대비 1.62%포인트 감소해, 1천원어치를 팔아 52.2원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 순이익은 2007년 1천450억원에서 지난해 -986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개별 기업별로는 금호산업·광주신세계·디에스알제강 등 전체의 3분의 2인 15개사가 흑자를 냈지만 금호타이어가 -2천3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전환했다.

매출액 상위 3개사는 금호산업(2조4천563억원), 금호타이어(2조3천985억원), KPX화인케미칼(3천444억원) 순이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낸 회사는 금호산업(1천614억원), KPX화인케미칼(693억원), 광주신세계(393억원) 순이었고, 당기 순이익 상위 3개사는 금호산업(364억원), 광주신세계(310억원), 디에스알제강(182억원)이었다.

지역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186.04%로 전국 평균(99.07%)의 2배 수준인데다 전년(172.73%)에 비해서도 13.31%포인트 올라 재무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가능

국토해양부 6월 시행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를 한 뒤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공사가 2만1천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이 1만1천가구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주택도 조기 전환이 허용된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쏘렌토R 시승단 모집합니다

기아차 21일까지

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 쏘렌토R의 시승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200명에게 주어지며 이달 21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 개설된 '쏘렌토R 200마력 체험 시승단 모집' 코너에 응모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만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며 당첨자는 이달 24일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또한 기아차는 쏘렌토R 출고 고객에게 7일간 유럽 여행 기회를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쏘렌토R을 출고하는 개인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이탈리아 쏘렌토와 로마를 여행할 수 있는 7일간의 여행권(동반자 1인 포함)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